

## 체류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Q** 직원이 해외 출장시 발생한 체류비에 대하여 직원에게 체류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체류비를 직원 소득으로 반영 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로 처리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해외 출장비의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영수증, 카드명세서)이 있거나 회사내의 출장비 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은 출장비(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증빙도 없고 출장비 지급규정의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꽃 매출 면세 및 과세 여부 관련하여

**Q** 1) 호텔 내부 행사시 판매되는 꽃은 과세인지 면세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 호텔에서 외부로 케이터링시 판매되는 꽃은 과세인지 면세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의 2가지 경우 모두 생화를 다듬어서 장식해주는 것이며 화학적 가공처리 등은 하지 않습니다.

**A** 1. 생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호텔에서 제공하는 과세대상 용역에 부수되어 생화가 제공되는 경우라면 부수재화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1과 마찬가지로입니다.

## 대금결제 지연이자 회계처리

**Q** 당사(갑)가 매출거래처(을)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하도급 거래는 아닙니다.  
갑과 을은 "대리점 거래 협약서"를 협약했고 협약서 내용에는 "대금 결제 및 채권회수" 조항이 있습니다.

대금 결제 및 채권회수 내용은 대금결제는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기준으로 정해진 회수기일내에 입금하며 회수기일 초과시 정해진 이자율로 이자계산후 이자는 "을"의 수금금액에서 차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25%의 원천징수를 하는게 맞는지 또는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원천징수를 안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자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이때는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968, 2003.11.14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대손채권

Q

s차 회생채권 변제인가로

2.4억 채권중 0.3억 현금변제 나머지 주식전환후 감자(3:1)입니다.

우선 현금변제부터 들어왔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인가일)

출자전환채권 2.4 / 채권 2.4

선수금 0.3 / 대손충당금 1.4

대손상각비 1.1

A

미회수 채권 중 일부가 현금으로 변제된 경우는 해당 채권가액과 현금을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차) 현금 0.3                      대) 채권 0.3

추후 나머지 채권(2.4-0.3)금액 중 대손처리 후 잔액은 주식전환시점에 자본금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